



특집을 내면서...

인류의 역사상과 20세기 과학기술사에서 두드러진 업적의 하나가 인간이 지구를 벗어나 달에 착륙한 것이다.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주공간에는 수많은 인공물체와 인간이 체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주공간의 활용을 활성화한 것이 인공위성과 그것을 활용한 산업의 성장이다.

위성을 이용한 통신시장의 확대와 발전가능성으로 인해 저궤도 이동 통신(음성, 데이터 등)위성에 대한 수요가 과거 급증하여 위성 제작산업도 성장을 하였다. 위성 제작은 성숙기를 맞이하여 선진국에서는 공정혁신(process innovation)을 통해 납기단축과 비용절감을 꾀하고 있고, 위성 제작에 소요되는 서브시스템을 타 기업에서 조달하여 쓰게 되면서 품질관리 등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분야와 같이 위성 제작기업들간에도 최근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 1월 보잉사가 휴즈(Hughes)사의 위성부분을 매입하였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샬 마토라, 독일의 다이물러크라이슬러 에어로스페이스, 영국의 마르코니 일렉트로닉스 시스템 3사가 우주부분을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일본에서는 위성 제작의 2위 기업인 NEC와 3위 기업인 도시바가 금년 9월 위성 부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사와와시마하리마중공업이 니산자동차의 항공우주·방위부분을 매수하는 등 위성 관련 기업들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통합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작년에 탄생하여 위성을 비롯한 우주산업에의 진입을 위한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7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작년에만 3기의 위성이 발사되어 현재 소기의 임무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리고 통신위성을 국산화하려는 움직임과 새로운 위성 수요자들이 위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작년 말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어 위성을 활용한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성에 대한 수요자 증대와 위성을 이용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본 호에서는 “위성응용산업과 위성개발”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구성하게 되었다. 본호의 키워드인 산업과 개발이 수레바퀴와 같이 함께 굴러가면서 국내에 경쟁력 있는 인력과 제품 그리고 기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동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의 의지가 결집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업과 공공연구기관간, 수요자와 개발자간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국내에서의 위성 개발과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미래에 개척해야 할 분야인 우주를 보다 우리 가까이로 끌어와야 하겠다.

특집위원장 조 황 희